

보도자료



보도일	2013. 6. 27(목) / 제한없음		
배포일	2013. 6. 27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 (880-5054, 9072)
담당부서	국제협력본부	문의	황정남 실장(880-8637) 배유리 주무관(880-8636)

제 목: 오연천 총장, 제17회 APRU 총장포럼 참석

-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2013년 6월 26(수)~28일(금)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17회 APRU(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, 환태평양 대학 연합) 총장포럼에 참석하였다.
- APRU는 환태평양 경제체제에서 과학·교육·문화적 협력을 모색하고, 글로벌 지식경제사회에서 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1997년 설립되었다. 현재 동경대, 북경대, UCLA, 스탠포드대 등 42개 회원 대학이 있으며, 연례총장회의와 학문분야별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,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.
- 오연천 총장은 한국 대학 총장으로는 유일하게 2011년 7월부터 APRU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의 운영위원(Member-at-large)으로 선출되어 42개 회원대학 협력의 방향성 제시 및 APRU 전략 설정 등 APRU의 핵심리더십에 참여하고 있다.
- 6월 26일(수) 열린 APRU 운영위원회에서 오연천 총장은 급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대학과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.

- 한편 6월 27일(목)에 있는 APRU 전체회의에서 오연천 총장은 한국을 대표하여 '동북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미래'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의 사회를 진행하였다.
- 동 세션은 총 4명의 한·중·일 및 러시아 대표가 각국을 대표하여 동북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. 특히 북경대 국제대학원 주평 교수는 더 이상 경제사회발전이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을 비롯한 한국, 일본 등 주변국이 함께 역할이 증진됨에 따라 지역 통합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, 한국이 더 이상 중간국가의 하나가 아니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그 역할이 중국,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. 특히 주평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·중 관계의 수평적 관계 형성 가능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.
- 이와 관련하여 오연천 총장은 기존 한·중·일 관계에 더하여 러시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협력체계에 있어 고유의 균형적 역할을 강조하였다.
- 이번 17회 총장포럼은 3차에 걸친 토론(러시아의 변혁, 북동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미래, 지식전달정책)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APRU 전략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